

## “본선 직행” vs “결선”...明-洛, 막판 수도권 ‘올인’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과 이낙연 전 당 대표가 오는 9-10일 경기·서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순회 경선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양 측은 ‘대중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여론에, 당심보다는 민심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막판 격차 좁히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까지 진행된 9번의 지역 순회 경선과 1·2차 일반 선거인단 투표 중 광주·전남을 제외한 10곳에서 과반 승리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현재 합산 누적 득표 수는 이 지사가 54만5천537표 (54.9%)로 과반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34만1천76표 (34.3%), 추 전 장관 9만858표 (9.1%), 박 의원 1만6천185표 (1.6%) 순이었다.

경선 일정이 마지막 1주일만을 남긴 가운데 이 지사가 누적 득표율 과반을 유지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6천여명에 현재까지 득표율 65.9%를 반영하면 전체 투표인 수는 약 14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9·10일 경기·서울 마지막 순회 경선...사할 건 총력전 누적 득표, 54.9% vs 34.3%...3차 슈퍼위크 표심 촉각

이 지사로서는 과반 ‘매직 넘버’인 71만표까지 약 17만표를 남긴 셈이다. 이 지사의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저지하기 위해선 오는 9·10일 열리는 경기·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최대한 표차를 좁혀야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의 대중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사 측에 불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질 경우, 대중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할 이 지사 쪽 주장이 명분을 잃을 것이라 판단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약재로 떠오른 대중

동 특혜개발 의혹에도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판정승(누적 투표수 기준)을 거둔 것을 근거로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에 본선행을 확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하고 있다.

야당의 대중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 공세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과당도 의원의 아들 50억원 성과급 수령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의힘=토건 비리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내걸고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 이익 전액 환수 법제화를 내걸고 지지층 다잡기에도 나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남은 경기·서울 경선 등

에서 마지막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3차 슈퍼위크에 걸려있는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수는 30만여명으로, 경기(16만여명)와 서울(14만여명) 경선 선거인단 수를 합친 수준과 비슷하다.

이낙연 후보는 최근 ‘결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전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 열려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민주당 원팀’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이종희기자



집단면역 향안 백신 접종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광주 북구예방접종센터에서 지자체 백신 자율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날 현재 백신 2차 접종을 포함한 완료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 전남 산발 감염 지속...무안·나주·보성·신안·장성·해남 확진자 발생

광주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에선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등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산구 건설 현장 관련 6명, 직업소개소 전수 검사 관련 3명, 서구 유흥시설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관련 5명, 감염 경

로를 조사 중인 1명 등 모두 16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중 9명은 외국인이었다. 광산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50여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중국인 노동자 6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광산구,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함께 현장 위험도를 평가하고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과 고

용사업장·직업소개소 행정명령·건설현장 관련 확진자 수는 총 50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남 광산구 한 유치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원생 110명, 교직원 3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전남에서는 타지역 관련,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7명(무안 2명, 나주·보성·신안·장성·해남 각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남 3218-3222번으로 분류됐다.

무안 확진자 2명은 충남 당진 확진자의 직장동료로, 최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전남 3218번은 경기도 한 대안학교의 교사다. 이 확진자는 해당 학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신안 소재 한 교회에서 전남 기확진자와 접촉한 뒤 능동감시 중 확진 판정 받았다. /오승자·임후성기자

## 호남·제주 중기 정책자금 전국 최하위

### 송갑석 “지역별 쿼터제 도입 필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이 7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남 제주 권역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4조2천803억원 중 13%에 불과한 3조2천748억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 강일 권역과 큰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의 39%에 달하는 9조4천415억원이 투입됐다. 영남권은 32%인 7조7천

881억, 충청 강원권은 16%인 3조7천759억 원이었다.

정책자금 지원금 증가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6년 1조6천173억원에서 2020년 2조5천63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남권은 1조3천311억원에서 2조698억원으로 56%, 충청 강원권은 7천467억원에서 8천926억원으로 20% 늘었다. 반면 호남 제주권은 2016년 8천561억원에서 2020년 7천641억원으로 오히려 11% 감소했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균등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낮 최고 29도...일부 지역 오락가락 비

8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뒤 동부 내륙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도-21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 분포를 보여줄다. 이는 평년보다 최고 5-7도 높은 기온이다.

이번 비는 내렸다가 그쳤다가 반복하면서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기온은 18-21, 낮 기온은

25-28도로 전날부터 1-2도 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훈기자

**Today**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매일 밤 10시 편의점은 북새통? 6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이야기·사과 14면  
※한글날 대체휴무 11일자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운전습관과 보행습관은 안전한가요?

# 지금 바로 교통안전 서약운동에 참여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교통 안전 습관 10가지 항목** 체크하기

- ☑ 교통법규 준수하기
- ☑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하기
- ☑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하기
- ☑ 급정차, 급출발 안하기
- ☑ 제한속도 20% 감속하기
- ☑ 불법 주정차 안하기
- ☑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통화하지 않기
- ☑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살피고 건너기
- ☑ 도시지역 제한속도 30~50km 이하로 운행하기
- ☑ 빗길, 눈길, 내리막길 제한속도 30% 감속하기



**8~37개** 빨간불! 앞으로 노력하면 되요!



**4~6개** 노란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7개 이상** 녹색불! 교통안전인식이 높은 당신! 앞으로도 유지해주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전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통안전서약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